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기관 물리치료사들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인식도 조사

문제강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물리치료실

A Survey for Recognition on th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in Physical Therapists of Seoul Metropolitan Public Health Center

Je-Gang Moon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Seoul Municipal Children Hospital

Background and Purpose In order to survey the recognition of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by Public Health Center (PHC) Physical Therapists in Seoul Province, this study analysed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physical therapists in cognition, participation, education, problems and requirements for CBR. **Subjects and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4 therapists who had been working at PHC in Seoul Province and Seoul City Municipal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from 5 Jan. to 31 Feb. 2009 and results as followed; **Results** 1. The age category between 30s and 40s represented 41.3% of the total number studied. 45.6% of therapists had worked more than 10years and typically 43.4% of therapists had worked more than 10 years at the PHC. The 7th grade of medical technical class in a position were most as 39.1% but 13.0% were non-regular workers and a period of over 5 years was needed for the promotion in 32.6% cases. 2. The most common type of treatment was therapeutic exercises as 30.4%, major recipient was elderly person higher than 50.0% and the number of the treatment of one day was higher than 20~30 people. 3. 21.7% of therapists were aware of the CBR, 30.4% of them had gotten the information from co-worker when we researched and 43.4% had important services. 4. For CBR, 30.4% had positive ideas in which they could participate. 34.7% desired more educational opportunities about CBR. 5.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taking part in CBR as Physical Therapists was job security. **Conclusion** Most of them want the interchanges of personnel and information in the PHC and metropolitan hospital. Factors inhibiting the execution of CBR were lack of administration support, physical therapists and equipments.

Key words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Public Health Center

책임 저자 문제강, tankmoon@seoul.go.kr

논문 접수일 2009년 8월 25일

수정 접수일 2009년 9월 15일

게재 승인일 2009년 9월 27일

I. 서론

현대사회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 확산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보편적 복지개념의 확산으로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서비스 요구가 다양화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김경혜, 2003).

지역사회 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이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 즉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및 전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가동·활용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채택되어진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1981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중요한 재활정책으로서 권장되어 있으며(전봉운, 1991; 김찬문 등 1998), 1994년 ILO, UNESCO, WHO는 지

역사회 중심재활을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과 성인의 재활과 동등한 기회의 보장,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의 한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Joint paper, ILO UNESCO WHO, 1994).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1) 새로운 기구나 단체를 만들기도 다 기존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2)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서 장애인 재활문제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3)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조그룹이 참여하도록 하고, (4) 지역사회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며, (5) 지역사회 내에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을 이용하고, (6) 관련된 여러 부문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연계되게 하는 방식이란 측면에서 전통적인 접근은 아니다. 기존 전문가 중심의 재활사업은 주로 의료중심으로 한 전문가의 서비스에 의존하여 장애

인 한 개인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내의 준전문가가 일반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부문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권선진, 2004).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보건학 및 물리치료학 분야를 중심으로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개념 도입 시기인 만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실무자 및 장애인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김찬문과 정재훈, 1998; 이인학과 남철현, 1998; 김찬문과 전유진, 2000; 이충희와 이연주, 2003) 및 적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황병용, 199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개념에 대한 연구(김용득, 2000),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권선진, 2004) 등이 있다. 김용득(2000)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개념을 지역사회 조직사업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는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자원에 대한 접근과 자원동원 전략으로서의 지역사회 조직사업, 사례에 대한 효과적 접근방법으로서 사례관리 등의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고, 그 사업의 핵심적 내용을 자원과 서비스 욕구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에 대한 초기 접근 및 파악,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동원, 사례 파악 및 사정, 자원과 사례 연결(서비스 실행)이 연결되는 과정 등 4가지 영역으로 파악하였다. 즉 이 연구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지역사회 조직화라는 차원과 사례 관리라는 차원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 서비스 관련기관, 지역사회주민, 각종 지역사회 단체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비스 욕구와 결합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1985년 한국 장애인재활협회의 사업을 시작으로 관악구 신림동과 청원군에서 4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이 첫 사업이었다(김병식, 1996). 그 후 1987년 전주예수병원, 1992년에는 각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 장애인 순회 재활 서비스센터를 두어 운영해 오고 있다(장수창, 1993; 국립재활원, 1997). 특히 국립재활원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1993년 보건진료원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중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1995년부터 서울 도봉구 보건소와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김찬문과 정재훈, 1998), 이후 1996년 지역보건법(법률 제05852호) 개정 시 제 9조 보건소의 업무 제 15항에 “장애인의 재활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전국 16개 거점 보건소를 중심으로 현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욕구조사, 재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국립재활원, 2005). 변용찬과 윤상용(2001)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국립재활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6개 거점 보건소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의 협조 부족과 재활전문요원의 역할 설정 미비,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의 연계 및 사업비, 인력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부족, 지역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빈약 등의 문제를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권선진,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기간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사를 파악하여 향후 보건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인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기간 물리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물리치료사들의 CBR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사를 파악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3개 서울특별시립병원과 1개의 지방공사 그리고 25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4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법으로 2009년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1개월간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34명으로 회수율은 73.9%였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물리치료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6문항, 물리치료사의 근무 형태 3문항,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인식에 관한 7문항, 문제점 및 필요사항에 관한 1문항 등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비는 여성이 43.4%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은 30~40세 미만 41.3%, 40세 이상 26.0%, 26~29세 미만 6.5%순이었다.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한 총 기간은 10년 이상이 45.6%, 5~10년 미만 21.7%, 3~5년미만 6.5%순이었으며, 공공의료기간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10년 이상 43.4%, 1년~5년 미만 19.5%, 5년~10년 미만 10.8%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직급은 의료기술 7급 39.1%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상용직) 13.0%, 의료기술 9급 8.6%, 의료기술 8급 6.5%, 의료기

술 6급 6.5% 순이었다. 현 직급에서 승진한 기간은 5년 이상 32.6%, 2년 미만 21.7%, 4년 미만 8.6%, 3년 미만 6.5%, 5년 미만 4.3% 순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특 성 | 내 용 | N (46) | % (100.0) |
|---------------------|---------------|-----------|--------------|
| 성 | 남 | 14 | 30.4 |
| | 여 | 20 | 43.4 |
| 연령 | 26세 이상-29세 미만 | 3 | 6.5 |
| | 30세 이상-40세 미만 | 19 | 41.3 |
| | 40세 이상 | 12 | 26.0 |
|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한 총 기간 | 3년 이상-5년 미만 | 3 | 6.5 |
| | 5년 이상-10년 미만 | 10 | 21.7 |
| | 10년 이상 | 21 | 45.6 |
| 공공의료기간에서 근무한 기간 | 1년 이상-5년 미만 | 9 | 19.5 |
| | 5년 이상-10년 미만 | 5 | 10.8 |
| | 10년 이상 | 20 | 43.4 |
| 직급 | 의료기술 6급 | 3 | 6.5 |
| | 의료기술 7급 | 18 | 39.1 |
| | 의료기술 8급 | 3 | 6.5 |
| | 의료기술 9급 | 4 | 8.6 |
| | 비정규직 | 6 | 13.0 |
| 현 직급에서 승진한 기간 | 2년 | 10 | 21.7 |
| | 3년 | 3 | 6.5 |
| | 4년 | 4 | 8.6 |
| | 5년 | 2 | 4.3 |
| | 5년 이상 | 15 | 32.6 |

2. 현재 공공의료기관 물리치료사의 업무 형태

현재 공공의료기관 물리치료 업무의 형태는 운동치료 위주가 30.4%, 열·전기치료 23.9%, 열·전기·운동치료의 병행이 21.7%, 기타 4.3%로 대부분이 통증치료 위주였으며, 물리치료 대상자의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50.0%로 가장 많았고, 40~60세까지 13.0%, 10세 이하 10.8%, 10~20세 이하가 4.3% 순이었다. 물리치료사가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의 수는 20~30명 이하 30.4%, 15명 이하 30.4%, 30~40명 이하 13.0% 순이었다(표 2).

3.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에 대해 “시행하지 않고 있다” 34.7%, “시행하고 있다” 28.2%, “잘 모른다” 10.8%로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방문간호계 13.0%로 가장 많았고 방

표 2. 현재 공공의료기관 물리치료사의 업무 형태

| 특 성 | 내 용 | N (46) | % (100.0) |
|------------------|-----------|-----------|--------------|
| 현재 치료하는 형태 | 열·전기치료 | 11 | 23.9 |
| | 운동치료 | 14 | 30.4 |
| | 수치료 | 0 | 0.0 |
| | 열·전기+운동치료 | 10 | 21.7 |
| | 기타 | 2 | 4.3 |
| 치료하는 연령 | 10세 이하 | 5 | 10.8 |
| | 10-20세 | 2 | 4.3 |
| | 20-30세 | 0 | 0.0 |
| | 30세-40세 | 0 | 0.0 |
| | 40-60세 | 6 | 13.0 |
| | 65세 이상 | 23 | 50.0 |
|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 수 | 15명 이하 | 14 | 30.4 |
| | 20-30명 | 14 | 30.4 |
| | 30명-40명 | 6 | 13.0 |
| | 40명 이상 | 0 | 0.0 |

문간호계+물리치료실 8.6%, 보건행정계 4.3%, 물리치료실 2.1% 순이었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안다” 21.7%, “보통이다” 21.7%, “모른다” 15.2%, “잘안다” 8.6%, “잘모른다” 8.6%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 보았나에 대해 동료 직원을 통해서가 30.4%, 해당 직무 교육을 받고서 17.3%,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2.1%로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해 “필요하다” 43.4%, “매우 필요하다” 13.0%, “필요하지 않다” 2.1%로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참여의사에서는 참여하겠다 30.4%, 보통이다 15.2%, 참여하지 않겠다 15.2%, 적극 참여하겠다 13.0%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을 받겠다 34.7%, 적극적으로 받겠다 15.2%, 받지 않겠다 15.2%, 보통이다 8.6%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교육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수행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CBR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 물리치료사는 정규직화를 원하였으며, 설문지에서 다수의 물리치료사는 시립병원과 보건소 물리치료사간의 정보 교환 및 인사 교류를 희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중심재활 수행시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 부족과 보건소 물리치료사의 인력 부족과 보건소의 물리치료 장비 부족을 들었다. 그렇지만 개선 방

표 3. 지역사회 중심 재활(CBR)에 대한 인식

| 특 성 | 내 용 | N (46) | % (100.0) |
|-------------------------------------|---------------|-----------|--------------|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시행 여부 | 시행하고 있다 | 13 | 28.2 |
| | 잘 모른다 | 5 | 10.8 |
| | 시행하지 않고 있다 | 16 | 34.7 |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담당 부서 | 보건행정계 | 2 | 4.3 |
| | 방문간호계 | 6 | 13.0 |
| | 물리치료실 | 1 | 2.1 |
| | 방문간호계+물리치료실 | 4 | 8.6 |
| | 가족보건계 | 0 | 0.0 |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식 | 잘 안다 | 4 | 8.6 |
| | 안다 | 10 | 21.7 |
| | 보통이다 | 10 | 21.7 |
| | 모른다 | 7 | 15.2 |
| | 잘 모른다 | 4 | 8.6 |
|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보았나 | 해당 직무 교육을 받고서 | 8 | 17.3 |
| | 동료직원들을 통해서 | 14 | 30.4 |
| | 물리치료 학습지를 통해서 | 0 | 0.0 |
| | 방송매체를 통해서 | 0 | 0.0 |
| | 물리치료사들을 통해서 | 1 | 2.1 |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생각 | 매우 필요하다 | 6 | 13.0 |
| | 필요하다 | 20 | 43.4 |
| | 보통이다 | 0 | 0.0 |
| | 필요하지 않다 | 1 | 2.1 |
| 참여 의사 | 매우 필요하지 않다 | 0 | 0.0 |
| |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6 | 13.0 |
| | 참여하겠다 | 14 | 30.4 |
| | 보통이다 | 7 | 15.2 |
| | 참여하지 않겠다 | 7 | 15.2 |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 0 | 0.0 |
| | 적극적으로 받겠다 | 7 | 15.2 |
| | 받겠다 | 16 | 34.7 |
| | 보통이다 | 4 | 8.6 |
| | 받지 않겠다 | 7 | 15.2 |
| | 절대 받지 않겠다 | 0 | 0.0 |

향에서는 CBR의 기본 개념과 전문교육을 받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III. 결론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

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물리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대한 인식, 참여, 교육,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립병원 3개소, 지방공사 1개소, 25개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46명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1개월간 자료를 수집하여 무응답자를 제외한 34명의 자료를 통계처리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43.4%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은 30~40세 미만 41.3%로 가장 많았다.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한 총 기간은 10년 이상이 45.6%,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10년 이상이 43.4%로 가장 많았다. 직급은 의료기술 7급 39.1%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상용직)도 13.0%였다. 또한 현 직급에서 승진한 기간은 5년 이상 32.6%로 가장 많았다.

둘째, 현재 공공의료기관 물리치료 업무 형태는 운동치료 위주가 30.4%로 가장 많았고, 물리치료 대상자의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50.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의 수는 20~30명 이하와 15명 이하 모두 30.4%로 가장 높았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에 대해 시행하지 않는다가 34.7%로 가장 높았으나 28.2%가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방문간호계 13.0%로 가장 많았다.

넷째, 응답자의 21.7%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30.4%가 동료직원을 통해 알게 되었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해 43.4%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했다.

다섯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30.4%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4.7%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교육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여섯째, 물리치료사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수행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의 정규직화와 시립병원과 보건소 물리치료사 간의 정보 교환 및 인사 교류를 희망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수행시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 부족과 물리치료사의 인력 부족이 높았고, 필요한 물리치료 장비에 대해서는 통증치료와 운동치료 장비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며, 이 사업에 대한 참여와 교육에 대해서는 30.4%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갖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견해를 기초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치료사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수행에 필요한 적절하

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공무원 직무교육 내용에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정기적인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정규직화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서 물리치료사의 참여는 재활치료팀의 한 일원으로서 재가 장애인의 기능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13.0%는 비정규직 물리치료사로 되어 있어 소속감의 결여와 행정부서 간 원활한 정보 교류의 해택을 보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의 정규직화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만을 위한 물리치료사를 보건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지역내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배치가 요구되며, 기존 물리치료사 1인으로는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 물리치료과목이 신설되어야 하겠다. 이 사업은 보건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 물리치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1. 국립재활원: 1995-1997 CBR 시범사업보고서. 1997.
2.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초급과정 교재 I. (주)문영사. 2005;3-9.
3. 권선진.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8집, 2004.
4. 김경혜.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R-24.
5. 김용득.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의 구성개념과 실행전략, CBR 적용을 위한 워크샵.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2000.
6. 김병식: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념 및 세계적 추세. 경기도 지역사회중심재활 중간관리자 교육 교재. 국립재활원. 1996; 22-26.
7. 김찬문, 전유진.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거점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인식도 조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0;491-495.
8. 김찬문, 홍완성, 배성일. 서울시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인식.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8;5(1):1-8.
9. 김찬문, 정재훈. 경기도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인식.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8;10(1):75-80.
10. 변용찬, 윤상용.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각년도, 보건복지백서, 2001.
11. 보건복지부. 각년도, 보건복지백서. 2002.
12. 이인화, 남철련. 장애인의 지역중심재활과 시설중심재활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1998;71-92.
13. 이충휘, 이현주. 원주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평가.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03.
14. 장수창.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사례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93.
15. 전봉운.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원리와 적용과제. 지역사회중심재활 방안 개발을 위한 워크샵. 1991.
16. 황병용.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기초 조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9;11(2):75-80.
1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for and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Joint Position Paper*. 1994.

